

GLOBAL ISSUE BRIEF

2026년 3월호

vol.32





Global Think Tank

**America First Policy Institute (미국
우선주의정책 연구소, AFPI)**

민 태 은 통일연구원

[taeeunmin@gmail.com](mailto:taeunmin@gmail.com)

America First Policy Institute (미국우선주의 정책 연구소, AFPI)

민태은 통일연구원 | taeeunmin@gmail.com

AFPI는 트럼프식 '미국우선주의(America First)'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을 제시하고 대중 지지를 호소하는 미국의 싱크탱크이다. 미국 싱크탱크의 성격을 설명하는 다양한 시각들은 엘리트주의, 다원주의, 그리고 제도주의로 요약될 수 있다.¹⁾ 간단히 설명하면, 엘리트주의는 싱크탱크를 권력자가 추구하는 의제 (agenda)와 정치 목적을 뒷받침하는 조직으로 본다. 반면 다원주의는 싱크탱크를 사회 또는 이익 집단이 자신들의 이익을 실현하는 가운데 상호 경쟁을 위해 만든 조직의 한 형태로 본다. 마지막으로 제도주의 시각은 싱크탱크를 정책의제 설정, 정책 형성 및 이행 등 정치과정 전반에 관여하고 기여하는 전문가들의 네트워크로 설명한다. 대부분의 싱크탱크는 이 세 가지 특징을 어느 정도는 지니고 있다. 하지만 AFPI는 엘리트주의 시각의 전형으로 볼 수 있다. AFPI의 설립 배경, 구성원 및 활동은 이러한 평가를 뒷받침한다.

설립 배경과 목적

AFPI는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 1기 임기 종료 직후인 2021년 4월에 트럼프 행정부의 성과를 옹호하고 미래의 공화당 정부를 위한 정책 프레임워크를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설립되었다. 당연히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직간접적으로 일했던 인사들이 AFPI 설립에 관여했다. 대표적 인물로 트럼프 1기 정부에서 정책국장(Director of United States Domestic Policy Council)을 지낸 브룩 로린스(Brook Rollins, 現 농무부장관), 중소기업청장(Administrator of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을 지낸 린다 맥마흔(Linda McMahon, 現 교육부장관), 그리고 국가경제위원회(Director of the National Economic Council) 위원장을 지낸 래리 커들로(Larry Kudlow, 現 AFPI 이사장)가 있다.

1) Thomas Medvetz, 2013, Think Tanks In America,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13)

주요 업무와 정책의제

AFPI는 "우리의 핵심 원칙은 자유, 자유기업, 위대한 국가, 군사 우위, 국익 중심의 외교,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활동에서 미국 노동자·가족·지역사회가 중심이 되는 것"이라고 자신들의 임무(mission)를 밝히고 있다.²⁾ 이 목적을 달성할 AFPI의 주요 업무를 살펴보면, 미국우선주의 정책의제 제언, 관련 연구 및 보고서 발간, 미국우선주의를 위한 법안·행정명령 초안 작성 및 법적 대응, 그리고 팟캐스트 운영³⁾과 행사 개최를 통한 미국우선주의 대중지지 호소가 있다. 여기에 보태어 '기다리는 백악관(White House in waiting)'⁴⁾이라 불릴 만큼 AFPI 구성원이 트럼프 1,2기의 요직을 오가고 있다는 점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인사 창구 역할도 하고 있다.



2) Our guiding principles are liberty, free enterprise, national greatness, American military superiority, foreign-policy engagement in the American interest, and the primacy of American workers, families, and communities in all we do.

3) AFPI는 매달 한 차례씩 'The Tank: An American First Podcast'를 통해 대중과 소통하고 있다.

4) Meredith McGraw, "Trump Returns to D.C. This Week. These Former Advisers are Plotting the Comeback," Politico, July, 25, 2022. <https://www.politico.com/news/2022/07/25/trump-america-first-policy-institute-think-tank-00047634> accessed March 05, 2026).

이렇듯 AFPI는 스스로를 초당파적이라고 소개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트럼프를 위한’ 싱크탱크다. 미국의 싱크탱크 중 일부가 특정 정치 성향을 띠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예를 들어 부르킹스 (Brookings Institute)는 진보 성향을, 헤리티지 파운데이션 (Heritage Foundation)은 보수 성향을 띠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AFPI는 ‘트럼프’라는 특정 대통령의 정책에 대한 학문적, 법적 그리고 실무적 기반을 제공하고 대중지지를 호소하는 데 더 무게를 둔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보수 싱크탱크와도 결이 다르다.

연장선상에서 AFPI는 정책과정에 매우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특징을 보인다. 특히 법정친구(amicus curiae)⁵⁾로서 법정의견서(amicus brief)를 연방법원이거나 대법원에 적극적으로 제출함으로써 트럼프가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반(反)트럼프 정책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을 하고 있다. 또한 트럼프의 정책이나 친 트럼프 법원 판결과 관련한 논평과 팟캐스트 방송을 통해 적극적인 대중 지지를 유도해 그야말로 행동하는 싱크탱크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행동하는 싱크탱크라는 특징은 AFPI가 한 국가의 국정과제와 같이 자신들이 추구하는 정책의제(agenda), 즉 정책비전(vision)을 제시하고 출발했다는 사실에서도 잘 드러난다.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AFPI는 트럼프가 표방하는 정책에 기반해 자신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정책의제를 10개의 pillar로 제시하고, 각 의제마다 세부과제와 목표를 설정함으로써 구체화된 로드맵을 밝히고 있다. 이들 10개의 의제를 살펴보면 AFPI는 거의 모든 정책 분야를 다루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국내정책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5) Amicus Curiae는 법정의 친구라는 뜻의 라틴어로 소송에서 소송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원고나 피고를 위해 법원의 판결에 참고할 전문적 소견·정보 또는 특정 견해를 전달하는 것을 일컫는다. 주로 의견서(brief) 형태로 제출된다.

표 1 AFPI 정책의제⁶⁾

구분	정책의제(Agenda)
Pillar I	Make the Greatest Economy in the World Work for All Americans
Pillar II	Put Patients and Doctors Back in Charge of Healthcare
Pillar III	Restore America's Historic Commitment to Freedom, Equality, and Self-governance
Pillar IV	Give Parents More Control Over the Education of their Children
Pillar V	Secure the Border, End Human Trafficking & Defeat the Drug Cartels
Pillar VI	Deliver Peace Through Strength and American Leadership
Pillar VII	Make America Energy Independent
Pillar VIII	Make it Easy to Vote and Hard to Cheat
Pillar IX	Provide Safe and Secure Communities So all Americans Can Live their Lives in Peace
Pillar X	Fight Government Corruption by Draining the Swamp.

AFPI의 운영과 구성

AFPI는 이사장, 소장, 상임이사 그리고 부소장 등으로 구성된 지도부, 관료 출신의 전문가 및 학자 등을 포함해 188명의 직원을 거느리고 있다.⁷⁾ 사실 AFPI의 홈페이지를 언뜻 보아서는 AFPI가 어떻게 구성되고 운용되는지 이해하기 쉽지 않다. 왜냐하면 AFPI는 대부분의 미국 싱크탱크가 자신들을 소개하는 방식과 달리 자신들의 연혁이나 주요 조직에 대한 요약적 소개가 없기 때문이다. 대신 AFPI는 자신들이 지향하는 정책목표를 제시하는 것을 중심으로 기관을 소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앞서 설명한 10개의 정책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정책 분야(Policy Area)를 18개로 세분화해 각각의 목표와 로드맵을 제시하고, 이들 분야별로 팀을 센터처럼 운영하고 있다.⁸⁾

6) 각 pillar의 정책목표와 구체적 로드맵은 다음을 참조; AFPI, "Agenda," <https://agenda.americafirstpolicy.com/>.

7) AFPI, "About," <https://www.americafirstpolicy.com/team/category/all-staff>, (accessed March, 3 2026).

8) AFPI는 홈페이지에 이들 정책 분야에 따라 일하는 팀을 센터(center)라고 직접 언급하지는 않지만, 자신들의 출판물에는 'Center for Education Opportunity'와 같은 방식으로 명기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특징은 AFPI의 폭넓은 활동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즉 특정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운영되는 많은 싱크탱크와 달리 AFPI는 정치, 경제, 외교, 안보, 노동, 농업, 법제, 에너지, 환경, 과학기술, 교육, 보건, 이민, 종교, 가치 등 거의 모든 국정 분야와 관련해 연구, 현안 분석 및 대응, 정책제안, 법적 대응 그리고 대중소통이라는 전방위적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이다.

표 2 AFPI 조직 구성⁹⁾

구분	정책 분야(Policy Areas)	주요 업무
1	1766	미 건국 250주년 기념교육·시민교육 프로그램 총괄
2	AI & Emerging Technology	AI 규제 완화, 빅데이터·양자컴퓨팅 미국 주도권 확보
3	American Child	성교육·온라인 콘텐츠와 관련한 아동보호, 학교 환경 개선, 청소년 범죄 예방 정책
4	American Dream	중산층 소득 증대, 주택 공급 확대, 경제 성장 패키지 설계
5	American Freedom	연방관료제 개혁(Schedule F ¹⁰⁾ 복원), 표현·종교·총기 자유 보호 방안
6	American Justice	범죄 처벌 강화, 보석제도 개혁, 경찰 예산 증액, 마약 카르텔 대응
7	American Security	국가안보에서 미국우선주의 강화, 국경 강화, 대테러 대책, 우주·사이버 안보
8	American Values	낙태 제한, 공공기관(학교)에서 종교의식, 가족 중심의 사회정책
9	China Policy Initiative	중국의 위협 분석 및 대응 정책
10	Economy & Trade	미국 노동자 보호에 중점을 둔 자유무역 정책, 관세 재평가, 중산층 감세 정책, 공급망 리쇼어링

9) 표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 AFPI, "Policy Area," <https://www.americafirstpolicy.com/policy-areas>; AFPI, "ISSUES," <https://www.americafirstpolicy.com/issues>.

10) 트럼프 1기 말에 행정명령을 통해 발령된 공무원 선발기준으로 대통령에 대한 충성도에 따라 대통령이 공무원을 임명·해고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다. 하지만 바이든 정부가 출범해 이 행정명령을 취소하면서 실제로 시행되지 못했다.

구분	정책 분야(Policy Areas)	주요 업무
11	Education Opportunity	부모의 교육 및 학교 선택권 확대, 조기 문해력 증진, 연방 교육부 폐지 및 주와 지방 정부 중심의 교육체계 구상, America 250 시민교육
12	Election Integrity	선거 무결성을 위한 정책 마련, 유권자 유효 ID 조건 강화, 우편투표 규제, 제3자 투표용지 수거(ballot harvesting) 제한, 선거인 명부 정비
13	Energy & Environment	환경규제 완화 방안: 석유·가스·원전 개발 확대, 파리협정 탈퇴, 환경보호청(Energy Protection Agency, EPA)의 환경 규제 축소
14	Farmers First Agenda	농민우선(Farmers First) 원칙하에 농민·농가 보조금 확대, 미국산 농산물 생산·제조 확대 및 관세 보호, 농업 규제 완화
15	Healthy America	의료정책: 오바마케어 폐지 및 건강저축계좌(Health Saving Account, HSA) 확대, 메디케이드 관리·감독 강화, 의료비 가격 투명화
16	Homeland Security and Immigration	국경 안보 및 장벽건설 강화, 이민 단속 강화, 인신매매 단속 강화, 마약 카르텔 척결, 국토안전부(DHS) 권한 확대
17	Litigation	미국우선주의의 헌법 및 법률적 기반 연구, 이민, 낙태, 성전환 관련 부모권리, 선거 무결성 관련 소송 지원 및 amicus brief 작성
18	Opportunity Now	직업훈련 확대, 숙련 노동자 양성,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

AFPI의 최근 주요 보고서 및 활동

AFPI는 거의 모든 국정 분야에 걸쳐 발간물을 게시하고 있어 주요 발간물을 특정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언급한 AFPI의 10개 정책의제를 담은 ‘America First Agenda’를 대표 보고서로 꼽을 수 있다. 이 보고서는 한마디로 트럼프 행정부의 AFPI 버전의 정책 지침서라 할 수 있다.

눈에 띄는 또 다른 보고서로 ‘Rethinking Tariffs as Bold Tools for American Security and Global Fairness’가 있다.¹¹⁾ 2025년에 발간된 이 보고서는 트럼프 2기 관세정책을 옹호하며, 관세를 전략적 도구로 활용해야 한다는 논지를 담고 있다. 이 보고서는 관세, 이민, 종교와 관련한 법정소송 건에 AFPI가 법정친구(amicus curiae)로 참여해 법정 소견서를 제출할 때 자주 인용되고 있다.¹²⁾ 한마디로 AFPI가 행정부 정책뿐 아니라 사법에까지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싱크탱크임을 잘 보여주는 보고서라 할 수 있다.

최근의 주목할 만한 성과로 2025년 교육부와 함께 미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출범시킨 ‘미국건국 250주년 기념 교육연합(America 250 Civics Education Coalition)’이 있다. 이 교육 연합은 미국의 가치, 정체성 그리고 시민의식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보수단체를 중심으로 조직되었다. 이 교육연합을 주도하는 기관으로 선정된 AFPI는 애국 시민교육, 역사교육 커리큘럼 그리고 관련 교육 자료를 AFPI 이름으로 발표하고 있다.

11) Kristen Xiccarelli, “Rethinking Tariffs as Bold Tools for American Security & Global Fairness,” AFPI, May 9, 2025, <https://www.americafirstpolicy.com/issues/rethinking-tariffs-as-bold-tools-for-american-security-global-fairness>, (accessed March 05, 2026)

12) 관련 법정의견서의 예로 다음을 참조: “Brief Amicus Curiae for The America First Policy Institute in Support of Respondents in NO.24-1287 and Of Petitioners IN=n NO. 25-250,” https://www.supremecourt.gov/DocketPDF/24/24-1287/375637/20250923153516576_Nos.%2024-1287%20and%2025-250_Amicus%20Brief.pdf, (accessed March 07, 2026).

평가와 전망

AFPI는 한국의 경제인문사회연구회(경인사) 소속 26개의 연구기관을 모아 놓은 것과 같이 다양한 연구와 활동을 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출연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경인사의 연구기관과 그 구성원들은 특정 행정부나 대통령의 정책을 획일적으로 지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 이와 달리 AFPI는 비정부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행정부와 상호 인사교류를 하면서 트럼프식 미국우선주의를 일방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AFPI의 모습은 특정 정책에 대해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전문가들이 모여 다양한 분석과 비판을 통해 정부 및 대중에게 지식과 대안을 제공하는 역할을 해온 워싱턴 벨트웨이(Washington Beltway)의 전통적인 싱크탱크의 모습과도 거리가 있다. 트럼프의 재집권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AFPI가 트럼프 퇴임 이후 어떠한 모습으로 그 명맥을 이어갈지 불분명하다. 하지만 특정 통치자의 정책논리를 뒷받침하면서 정치과정의 실질적 참여자로서 그 역할을 확대하고 있는 AFPI가 미국 싱크탱크의 체질적 변화 가능성의 계기가 되고 있음은 분명해 보인다.



AMERICA FIRST POLICY INSTITUTE